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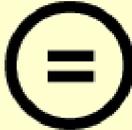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edia Framing of Immigrants
o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강 은 진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모 경 환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강 은 진

강은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시민성의 주요 요소인 다문화수용성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과와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먼저 이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미디어 프레이밍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을 다문화주의 프레이밍, 동화주의 프레이밍으로 구분하고,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주 가설과 세 가지 하위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중학교 세 곳을 표집하고, 각 학교의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다문화주의 프레이밍 영상과 동화주의 프레이밍 영상을 처치한 후, 종속변인인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356부의 설문 자료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설문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디어 프레이밍 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을 독립 변인으로, 성별, 다문화 친구 유무, 다문화 미디어 접촉 빈도, 학업 성적 수준을 통제 변인으로, 다문화수용성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주의 프레이밍 영상을 처치한 집단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동화주의 프레이밍 영상을 처치한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였다. 다문화수용성을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정한 세 하위 가설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프레이밍 영상 처치 시 두 집단 모두 동일한 주제의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주제에 대해 충분히 프레이밍(priming)되는 ‘점화 효과(priming effect)’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학생들이 자신의 실제 태도보다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바람직한 태도’를 자신의 태도라고 답변하는 ‘방어적 왜곡(self-presentational bias)’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수용자들의 개인적 특성이 매체 내용의 해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매체 효과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 미디어와 다문화교육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동화주의적 관점이 다문화 구성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되는 것을 경계하고, 효과성이 검증된 기존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동화주의적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지 면밀하게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통제 변인 중 성별과 다문화 친구 유무가 다문화수용성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것을 고려하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과 운영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학 분야에서 그동안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프레이밍이라는 개념을 다문화교육과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열고, 다문화 수업 자료로써 영상 미디어의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연구 대상이 서울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타 지역 및 초·중등교육 전반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연구 참여자 선정 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실험 연구 및 설문 조사가 단기간에 이루어져 장기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서울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들로 한정하였으나 연구 대상의 지역과 학교급을 달리 하여 가설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시도해볼 수 있다. 둘째, 프레임 처리 도구를 다른 영상 미디어로 교체하여 연구를 진행해볼 수 있다. 셋째, 종속 변인과 통제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선해볼 수 있다. 넷째, 다문화교육에서의 미디어 프레임 효과를 면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장기간의 실험 및 관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다문화수용성, 미디어 프레임, 다문화교육,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학 번 : 2014-20915

목 차

I.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연구 문제 및 연구 내용	3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3
II. 이론적 배경	6
1.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수용성	6
1)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교육	6
(1) 다문화 사회의 전개와 교육적 과제	6
(2)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9
(3) 다문화교육의 패러다임: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11
2) 다문화수용성의 개념과 구성 요소	14
(1) 다문화수용성의 개념	14
(2) 다문화수용성의 구성 요소	15
2. 미디어와 다문화교육	18
1) 접촉 이론과 간접 접촉	18
2)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 간접 접촉	20
3. 미디어 프레임링 효과	21
1) 프레임링의 개념	21
2) 프레임링 효과와 미디어 프레임링	22
3)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링	24
4. 선행연구 검토	25
1)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5
2) 미디어 프레임링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27

III. 연구 설계	30
1. 연구 가설	30
2. 연구 대상	30
3. 연구 변인	34
1) 종속변인	34
2) 독립변인	38
3) 통제변인	41
4. 연구 절차	42
5. 분석 방법	42
IV. 연구 결과	45
1.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수준	45
2. 프레이밍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46
1) 프레이밍과 다문화수용성	47
2) 프레이밍과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	51
3) 프레이밍과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	53
4) 프레이밍과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	54
V. 결론 및 제언	57
1. 요약 및 논의	57
2. 제언	60
참고문헌	64
부록	71
Abstract	78

표 목 차

<표 II-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법무부, 2020)	6
<표 II-2> 청소년의 다문화 가정 자녀·이주민과의 관계 유형	8
<표 II-3> 동화주의 모델과 다문화주의 모델	12
<표 II-4> 국내 다문화수용성 측정 개념들(안상수 외, 2012) ..	15
<표 II-5> 다문화수용성의 구성 요소	16
<표 III-1> 사회과 교육과정 중 본 연구 관련 성취기준	31
<표 III-2> 연구 참여자의 배경 정보	33
<표 III-3> 청소년용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원점수의 채점: ...	36
<표 III-4> KMCI-A의 전체 및 하위 구성 요소별 내적 합치도	38
<표 III-5> 프레이밍 처치별로 제공되는 영상 매체	40
<표 IV-1> 전체 연구 참여자의 다문화수용성 수준(N=356)	45
<표 IV-2> 연구 참여자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성별)	46
<표 IV-3> 가설 검증을 위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47
<표 IV-4> 주 가설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48
<표 IV-5> 연구 참여자의 학업 성적 수준 응답 비율	50
<표 IV-6> 하위 가설 1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51
<표 IV-7> 하위 가설 2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53
<표 IV-8> 하위 가설 3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55

그림 목 차

[그림 Ⅱ-1]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	7
[그림 Ⅲ-1] 청소년의 매체 이용률: 연도별(김지연 외, 2020)	39
[그림 Ⅲ-2] 본 연구의 분석 틀	43

I. 서론

1. 문제 제기

바야흐로 ‘혐오’의 시대이다. 성별, 지역, 인종, 종교 등의 여러 가지 잣대를 내세워 내집단과 외집단을 철저히 구분하고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성급한 일반화로 무분별한 혐오를 표현함으로써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만연하면서 청소년들이 혐오 사회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는 한 사회 안에 존재하는 인종, 민족, 종교, 계층 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편견과 차별이 배제된 공존을 지향한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내국인과 이주민 간의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표현 자체를 부정적인 표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다문화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이에 따른 각종 사회 문제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자신과 다른 문화 그리고 그 문화를 향유하는 타자의 삶을 공감함으로써 이해와 배려의 태도를 함양하고 협력과 연대 의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주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올바른 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와 다문화교육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오늘날 다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시청각 매체들이 쏟아져나오는 가운데, 다문화 개념이 도입되던 초기의 시선처럼 여전히 그들을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 계층으로 그려내는 예도 있는가 하면 우리 사회의 다문화 구성원을 다수 집단의 구성원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가깝고 친근한 이웃처럼 묘사하는 예(e.g. KBS <이웃집 찰스>, MBC every1 <대한의 국민> 등)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다문화 관련 정책이 시혜 위주의 온정주의 관점과 주류 문화에의 동화를 강요하는 동화주의 관

점에서 차츰 벗어나 한 사회에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진화하려는 사회적 추세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불우한 상황에 처한 소수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종이나 성별처럼 인간의 다양한 존재 방식의 하나로 인식해야 하듯이 한 사회의 주류 문화 집단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을 향한 연민(pity)을 베푸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즉 시혜적 동정(sympathy)이 아닌 호혜적 공감(empathy)을 바탕으로 한 수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디어에서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의 이미지는 착한 며느리, 불쌍하고 도와주어야 할 시혜의 대상 등으로 그려진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한 TV 교양 프로그램은 이주민을 수동적인 시혜의 대상으로 그린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고 결국 종료되기도 했다.

동화주의적 관점 역시 다문화를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에서 여전히 자주 나타나고 있다. 동화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미디어는 이주민이 한국 문화에 적응한 것을 보고 “한국 사람 다 됐다”며 과도하게 칭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이주민들에게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 한국인의 입맛에 길들여져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가게 된다. 현대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는 동화를 대가로 사회 일원으로 인정하는 동화주의적 관점보다는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고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다문화주의적 관점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고학과 심리학 분야의 선행 연구들을 교육학에 접목하여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이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지난 수십여 년간 타 학문 분야에서 프레이밍이 인간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하게 연구해 온 것에 비해 교육학 분야에서는 프레이밍 효과에 관한 연구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아왔다.

현대 사회의 민주시민교육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학생들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접하게 된다. 학생들의 문화 정체성을 비롯한 가치, 신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 텍

스트로서 미디어는 정보 사회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가 대상을 프레이밍하는 방식은 미디어를 수용하는 대중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디어는 다문화 집단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을 등장시킴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및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도출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다문화주의 프레이밍 vs. 동화주의 프레이밍)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할 것인가?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주의 프레이밍과 동화주의 프레이밍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시민성의 주요 요소인 다문화수용성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과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주 배경 사회 구성원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리 사회로 하여금

이주민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아닌 이주민과의 조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인식과 태도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성인기로 이어져 미래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수용성 함양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는 사회과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학 분야에서 그동안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프레이밍이라는 개념을 다문화교육과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였다. 다문화 미디어와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실험 연구보다도 미디어가 다루는 내용 그 자체를 분석한 미디어 담론 또는 미디어 접촉 경험 유무나 노출 빈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또한 다문화 미디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는 대부분 성인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다문화 미디어의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청소년 대상 실험 연구는 극히 미흡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 대상의 실험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 구성원을 다룬 미디어의 프레이밍 양식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다문화수용성 관련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다문화 수업 자료로써 영상 미디어의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그간 다문화 미디어를 소재로 한 연구는 광고나 뉴스 보도를 주요 소재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영상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사회에서 영상 미디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연구 대상이 서울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타 지역 및 초·중등교육 전반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지역과 학교급이 제한되었으므로 연구 대상의 지역과 학교급을 확대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추가적인 검증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연구 참여자 선정 시 무작위 표본 추

출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통제 변인을 설정함으로써 분석 과정에서 처치 전에 존재하는 집단 간 차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실험 연구 및 설문 조사가 단기간에 이루어져 장기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교육과 다문화수용성

1)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1) 다문화 사회의 전개와 교육적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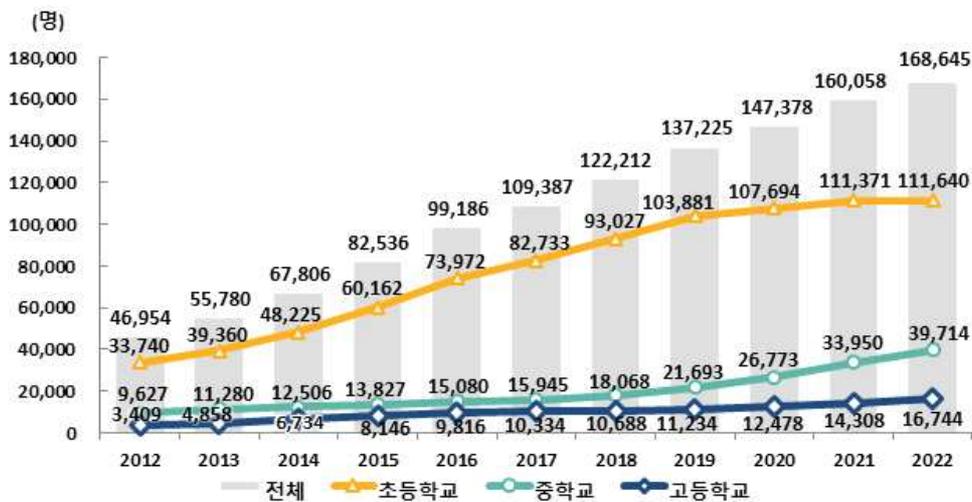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 이후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 역시 다문화적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특수성이 반영되기 이전까지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와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표 II-1>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나 그 자녀 세대까지 고려하면 이주 배경 집단 규모는 상당히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법무부, 2020)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체류 외국인(명)	1,899,519	2,049,441	2,180,498	2,367,607	2,524,656
장기 체류 외국인(명)	1,467,873	1,530,539	1,583,099	1,687,733	1,731,803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	3.69	3.96	4.21	4.57	4.87

이러한 추세는 학교 현장에서의 다문화 학생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다문화 학생은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가정의 자녀로 구성되며,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친부모 중 한 명만 외국 국적인 경우이고, 외국인 가정 자녀는 친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인 경우를 의미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2).

다문화 학생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2년 이후부터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II-1]과 같이 모든 학교급에서 매년 다문화 학생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교육부 통계 기준 초·중등학교(각종학교 포함)의 다문화 학생 수는 168,645명으로 전년에 비해 8,587명(5.4%↑) 증가하였으며, 다문화 학생 비율은 3.2%로 전년에 비해 0.2%p 상승하였다.



[그림 II-1]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2, p. 54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 다문화 학생과 다양한 관계를 맺을 기회도 늘어났다.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 II-2>와 같이 다문화 가정 자녀나 다문화 학생 또는 이주민과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들이 관계없

는 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에 이주민이나 이주배경 또래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에는 65.3%, 2018년에는 58.9%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의 이주민, 이주배경 또래와의 관계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다문화 가정 자녀를 친구로 두거나 같은 학교에 다니는 등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또래 관계를 통하여 이주배경 집단과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김이선 외, 2022).

<표 II-2> 청소년의 다문화 가정 자녀·이주민과의 관계 유형
(김이선 외, 2022)

	전체(2015년)	전체(2018년)	전체(2021년)
사례 수(명)	3,640	4,225	4,978
부모님(%)	(2021년 조사에서 처음 포함됨)		1.4
부모님 이외 가족 및 친척(%)	7.0	8.8	6.0
친구(%)	12.1	17.0	27.6
같은 학교 학생(%)	8.7	12.3	47.0
이웃(%)	7.6	6.8	9.7
선생님 (학교/학원/과외)(%)	3.7	6.1	8.0
기타(%)	1.6	1.7	8.5
주변에 없음(%)	65.3	58.9	36.7

이민자가 증가하고 이주배경 집단의 존재가 부각되면서 등장한 다문화적 변화는 개별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국가 중심의 시민성 개

념에서 벗어나 전(全) 지구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민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화의 흐름 속에서 공존의 원리를 모색하는 것은 미래 사회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회 내에 존재하는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의 토대 위에 사회 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 시민성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다문화교육이 나날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특히 앞서 언급했다시피 각 학교급에서 매년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2)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다문화교육의 구체적인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Bennett(2001)에 따르면 다문화교육은 문화적 다원주의에 근거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교육의 평등을 지향하는 교육이다. Sleeter와 Grant(2003)는 소수 문화 집단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동시에 소수 문화 집단의 관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의 개혁을 다문화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모경환·차경수(2021)는 다문화교육을 소수 집단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다수 집단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차별 해소를 추구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다문화교육 연구의 선구자인 James A. Banks(2018)는 다문화교육을 ‘모든 학생의 교육적 평등을 위한 개혁 운동(reform movement)’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문화교육의 목적을 모든 학생에게 문화, 민족, 계층 등을 초월하여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문화적 교류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인식, 행동의 발달을 돕는 데에 두었다. Banks는 1960년대 민권 운동 이후 발달한 다문화교육이 그동안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 여전히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방해

하는 많은 오개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Banks, 2018).

Banks가 지적한 오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다문화교육은 특정 민족, 인종 집단이나 소외당하는 자들만을 위한 교육이며 기존의 다수 집단 학생들과는 무관한 교육이라는 오해이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은 소수 집단 학생들을 위한 학업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태도를 ‘모든’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이다.

둘째, 다문화교육은 반(反)서구적이라는 오해가 있으나, 실상 다문화교육은 자유, 정의, 평등이라는 서구 민주주의 이상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여전히 차별이 강하게 남아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행동까지를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셋째, 다문화교육은 국가를 분열시킨다는 오해가 있으나, 오히려 다문화교육은 소수 문화 집단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문화적 차이가 사회 갈등 요인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분열된 사회의 통합을 추구하는 교육이다.

다문화교육은 일부 학생 집단이 학교 문화에 더 잘 부합한다는 이유로 다른 집단 출신의 학생들에 비해 학문적으로 성공할 기회를 더 많이 얻고 있다는 것을 주요 전제로 하며, 이러한 전제하에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Banks, 2018).

그렇다고 해서 다문화교육이 소수 문화 집단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문화교육은 소수 문화 집단의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소수 문화 집단의 동화를 통한 문화적 획일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소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비단 소수 문화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다문화교육은 주류 문화 집단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소수 문화 집단 구성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동시에 모두가 다문화 사회에서 이에 걸맞은 시민성

을 갖추으로써 자유, 평등, 인권 등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요컨대 다문화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는 소수 문화 집단의 구성원들을 위한 배려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추구하고, 주류 문화 집단의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시민적 자질을 기르며, 세계화 시대의 지구촌 공동체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다.

(3) 다문화교육의 패러다임: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Castles와 Miller(2009)는 각국의 이주민 수용 방식을 차별적 배제 모델, 동화주의 모델, 다문화주의 모델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먼저 차별적 배제 모델(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은 이주민 정책에 있어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유형으로, 이주민의 사회 참여를 차별적으로 인정하며 소수 인종 집단과의 접촉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회피하고자 한다.

차별적 배제 모델은 과거 단일 민족을 강조해 온 국가들에서 채택되어 왔으나 오늘날 세계화의 진전으로 이러한 차별적 배제 모델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동화주의 모델이나 다문화주의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한승준, 2008).

동화주의(assimilation) 모델은 동화를 대가로 이주민을 사회 일원으로 인정하는 반면, 다문화주의 모델은 동등한 공존과 참여를 강조한다(김은미 외, 2009). 즉 이주민들에게 한국 사회로의 적응을 강요하거나 부추기는 동화주의가 이주민의 적응, 동화에 초점을 두고 주류 문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는 관점이라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모델은 다양성과 관용, 통합을 중요한 가치로 간주한다. 다문화주의의 영향을 받은 다문화 정책을 ‘모자이크(mosaic)’ 정책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다문화적 정체성을 수립하는 정책이라는 뜻을 내포한다(Race, 2011).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는 이주민 사회 통합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대변하며, 이 모델들은 다문화 사회의 정책 결정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동화주의 모델과 다문화주의 모델의 특징을 비교하면 <표 II-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3> 동화주의 모델과 다문화주의 모델

구분	동화주의 모델	다문화주의 모델
문화적 지향	- 문화적 동질화 추구 -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타문화 이해와 수용	- 문화적 이질성 존중 -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타문화 인정과 보호
갈등 해소 방안	- 소수 집단의 완전한 동화를 통한 사회 갈등 해소	- 소수 집단의 완전한 참여를 통한 사회 갈등 해소
이주민에 대한 관점	- ‘노동력’, ‘이방인’ - 통합의 대상	- 사회구성원 - 사회 다양성의 원천

출처: 한승준(2008), p. 470 표 수정

1950년대까지 미국은 이주민이 자국의 문화를 포기하고 주류 사회에 흡수되도록 하는 동화주의 통합 정책을 주로 취해왔다. 이민자들을 기존 문화에 통합 흡수하는 동화주의 정책하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독립성이 보호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을 중심으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민권 운동이 전개된다.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역시 이러한 갈등과 저항의 산물이다. 이로써 서구 사회는 여러 수준에서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는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다.

1960년대 민권 운동을 계기로 대두된 미국의 다문화교육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쟁 역시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인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모경환·차경수, 2021).

동화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요구와 주장을 국민적 일체감을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사회를 해체할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으로 주류 문화에 기초한 교양교육을 내세운다(모경환·차경수, 2021).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문화적 다양성은 기존의 문화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며, 교육의 목적은 소수 문화가 주류 문화에 동화, 포섭되는 것이다. 이른바 ‘용광로(melting pot)’ 이데올로기에 속하는 관점이다.

반면 한 사회의 문화적인 다양성이 자유, 정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처와 노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를 더욱 발전시킨다고 보는 다문화주의 관점을 견지하는 학자들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처하는 능력이야말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들이 지닌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자문화의 가치와 전통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역할이다. 이러한 입장은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상호 공존하며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조화되어 또 다른 통합성을 이루어내는 ‘샐러드 그릇(salad bowl)’ 이데올로기에 속한다(모경환·차경수, 2021).

동화주의 관점에서는 다문화주의 관점의 정책과 다문화교육을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동화주의 정책을 실시해 온 국가들에서는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해 왔다. 미국 사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동화주의가 사회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 사회와 학교는 점차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은 오늘날 미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원동력이 되고 있다(모경환·차경수, 2021).

그러나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단일 민족, 단일 문화라는 정체성을 강

하게 유지해온 만큼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준비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학교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방성과 관용의 자질을 함양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를 토대로 한 다문화교육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2) 다문화수용성의 개념과 구성 요소

(1) 다문화수용성의 개념

다문화 사회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핵심 가치이다. 다문화 사회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인 다문화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bility)은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공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는 태도’(민무숙 외, 2010) 내지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윤인진·송영호, 2011)로 정의된다.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의 다문화적 역량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시민을 육성하는 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떠오른 가운데, 다문화 사회의 시민으로서 집단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태도인 다문화수용성은 시민교육의 핵심적인 의제이자 사회 통합의 바탕을 이루는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구하라 외, 2021).

그동안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은 단일한 용어로 표현되지 않고 다문화수용성,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지향성, 다문화적 태도, 다문화 역량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어 왔으나, 십수 년 전부터 국내에서 다문화수용성 진단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이 정련화되고 이 도구를 토대로 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한국 사회에 적합한 다문화수용성 지수 개발 작업은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개발 연구’(안상수 외, 2010)에서부터 출발하여 ‘국민 다문

화수용성 조사 연구’(안상수 외, 2012)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민무숙 외, 2012)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국민 다문화수용성 지수(KMAI: Korea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 일반인용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 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 과정을 거친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지수(KMAI-A: Korea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 for Adolescents), 청소년용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A: 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for Adolescents)가 개발되었다.

(2) 다문화수용성의 구성 요소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가 개발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종속 측정치로 삼은 개념들은 연구마다 상이하며, 그 내용은 <표 II-4>와 같다.

<표 II-4> 국내 다문화수용성 측정 개념들(안상수 외, 2012)

연구	다문화수용성 측정 개념들
황정미 외(2007)	사회적 거리감, 국민 정체성과 시티즌쉽,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 종족적 배제주의
윤인진·송영호(2007) 김혜숙(2007) 이명진 외(2010)	사회적 거리감
오계택(2007)	종족 배제주의 척도와 사회적 거리감 척도
맹진학(2009)	다문화에 대한 태도척도(Multicultural Attitude Scale(MS))를 이용하여 사회적 배제 태도 측정
양계민(2009)	종족 배제주의,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를 인지/정서/행동으로 측정

송미영(2010)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빈곤한 국가의 아동을 지원하는 일)를 돕는다’는 보편적 가치척도 한 문항으로 측정
황정미(2010)	보편적 권리 수용, 집합적 위협 인지
윤인진·송영호(2011)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태도 (다문화 지향성, 자민족 지향성), 합법 체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지적 위협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2010년 개발된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는 다문화수용성의 구성 요소를 다양성과 관계성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안상수 외, 2010). 이에 대해 외국인의 출신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집단별 차이를 두는 이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특수성으로 알려진 이중성을 반영하여 ‘보편성’을 추가하였고, 그 결과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에서의 다문화수용성은 다양성, 관계성 두 차원에서 보편성이 추가된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며, 각 차원의 하위 요소는 <표 II-5>와 같다(안상수 외, 2012).

<표 II-5> 다문화수용성의 구성 요소

다양성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차별
관계성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정서
	상호교류행동의지
보편성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의지

첫째, 다양성 차원은 내집단 정체성과 다른 여러 집단의 문화나 가치를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타 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으며, 더 나아가 다른 문화 또는 그 문화에 속한 개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성향을 말한다(안상수 외, 2015). 다양성 차원의 하위 구성 요소에는 문화개방성과 국민정체성, 그리고 고정관념 및 차별 요소가 있다.

문화개방성은 인종, 종교 및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주민과의 공존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정도,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인지적 신념 작용을 의미한다. 국민정체성은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됨’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며, 어떤 사람을 국민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인식으로, 생득적 요소나 국적, 한국어 능력이나 전통 음식에 대한 선호와 같은 문화적인 요소 등의 자격 요건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통하여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한다. 고정관념 및 차별 요소는 외국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고정관념 정도, 이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려는 차별적 행동 경향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김이선 외, 2018).

둘째, 관계성 차원은 이주민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도와 관련되는 것으로써, 적극적으로 통합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의미한다(안상수 외, 2015). 관계성 차원에서는 일방적 동화기대와 거부·회피 정서, 그리고 상호교류행동 의지를 측정한다.

일방적 동화 기대 요소는 주류 집단의 입장에서 소수자의 입장에 있는 이주민이 고유한 한국의 관습과 문화를 이해하고 순응하며, 한국어를 더 완벽하게 하기를 기대하는 정도로 측정된다. 거부·회피 정서 요소는 피부색이나 출신 지역이 다른 외국인 또는 이주민들과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지에서 접촉을 꺼리거나 위협, 불결함 등과 연관되어 있는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다. 상호교류행동 의지 요소는 외국인 또는 이주민과의 친목 모임이나 친구 관계 형성, 식사, 데이트 관계 등의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향이나 행동 의지를 측정한다(김이선 외,

2018).

셋째, 보편성 차원은 경제발전의 수준이나 문화적 가치의 등급화, 차별화에 근거하지 않고, 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계를 초월한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근거하여 인종적, 종교적, 지역적 차이 등을 다루며, 모두가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안상수 외, 2015). 보편성 차원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 의지를 측정하는 하위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적 평가 요소는 종족적, 문화적 배경 또는 경제적 수준별로 상이한 이주민에 대하여 집단에 따라 차이를 두는 이중성 정도를 측정한다. 세계시민행동 의지 요소는 외부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계를 초월한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빈곤, 기아, 인권 문제와 같은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발전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행동적 지향성 또는 행동 의지를 측정한다(김이선 외, 2018).

2. 미디어와 다문화교육

1) 접촉 이론과 간접 접촉

본 연구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미디어 프레이밍에 주목하는 것은 효과적인 다문화교육 도구로써 미디어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함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디어를 통하여 집단 간 접촉 경험을 제공하는 매개 접촉(mediated intergroup contact)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사회심리학적 접근 중 하나인 집단 간 접촉 이론(intergroup contact theory)은 편견 감소 및 집단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되어 왔다. 접촉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Allport(1954)는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을 통해 다른 문화나 이주민과 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접촉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개

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Allport(1954)가 접촉 가설을 공식화한 이후로 사회심리학자들은 오랜 연구를 통하여 적절한 구조화가 이루어진 집단 간의 접촉이 집단 간 긴장 완화, 관계 개선, 편견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llport는 타인에 대한 편견이 상대에 대한 잘못된 혹은 불완전한 정보를 토대로 외집단에 대하여 형성된 성급한 일반화에서 기인하며, 지배 집단과 소수 집단 간에 평등한 지위에서 접촉한다면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동등한 집단 지위, 공동 목표, 집단 간 협동, 권위 법 혹은 관습의 지원이라는 조건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집단 간의 접촉이 이루어질 때 집단 간 접촉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Allport, 1979).

그러나 집단 간 접촉을 교육적인 개입의 수단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접촉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집단 간 구성원이 실제로 접촉할 기회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향이 있고,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외집단 구성원과의 접촉 자체를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황미영, 2019). 이에 따라 사회심리학자들은 직접 접촉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간접 접촉 방식을 발달시켜왔다.

대표적인 간접 접촉 방식으로는 확대 접촉, 상상 접촉, 매개 접촉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간접 접촉의 방식인 매개 접촉은 TV, 영화, 비디오 등의 미디어를 통한 내집단 구성원과 외집단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 관찰이나 미디어에 등장하는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노출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황미영, 2019).

Pettigrew et al.의 연구는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이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즉 외집단과의 직접 접촉을 통한 교류가 없더라도 주변 사람이 외집단과 맺는 관계,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모습, 상상 속에서의 상호작용 등이 외집단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이다(Pettigrew et al., 2011).

매개 접촉은 직접 접촉에 비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서로 다른 집단 간 접촉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주민을 비롯한 소수 문화 집단과의 접촉이 현실에서보다 미디어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흔한 현대 사회에서 매개 접촉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2)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 간접 접촉

청소년들은 매개 접촉을 통해 미디어 속 청소년과 다문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거나 미디어에 등장하는 다문화 구성원의 모습에 노출됨으로써 다문화 구성원과의 간접 접촉 경험을 얻을 수 있다. 미디어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비출 수 있는 풍부한 자료로써 학습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청각적 요소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상물은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다문화 현상을 쉽게 이해하게 해주며, 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공존을 위한 실천 의지를 자극할 수 있다(구정화 외, 2018). 다문화 도서와 영상을 활용하여 다문화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을 때 해당 주제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을 밝힌 김미혜 외(2015)의 연구 결과는 다문화교육 차원에서 활용한 다문화 영상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디어 비평에 기반한 다문화교육이 강의식 다문화교육보다 초등학생들의 고정관념을 감소시키고, 이주민에 대한 친밀감과 교류행동의지를 증가시킨 은지용·이윤정(2021)의 연구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매개 접촉을 활용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적 가치 함양에 효과적이며, 학습자들은 직·간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미디어 프레이밍 효과

1) 프레이밍의 개념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양상과 경로 중 대표적인 것으로 모델링, 점화 효과, 배양 효과, 의제 설정, 프레이밍, 설득 모델, 프레이밍 등을 들 수 있다(임정수, 2012). 이 중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개념은 프레이밍이다.

모델링은 관찰자가 미디어를 통해 접한 행위를 모사하는 것을 말한다. 점화 효과(priming effect)란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후속 판단이나 행위 판단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미디어 노출이 수용자의 마음 속에 저장되어 있던 관련된 사고를 활성화할 때 발생한다. 배양 효과(cultivation effect)는 특정 미디어에 대한 장기적이고 강한 노출이 갖는 효과에 주목한다. 주로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의제 설정은 반복된 뉴스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특정 이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미디어 효과를 말한다. 설득 모델은 수용자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디어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프레이밍은 같은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을 각기 다르게 하여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다. Snow와 Benfold(1988)는 프레임의 개념을 ‘관련 이벤트나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의미가 ‘있고 없고’ 혹은 ‘크고 작고’를 판단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할 정도로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ntman(1993)에 따르면 프레임(frame)은 ‘텍스트를 구성하면서 현실의 어떤 측면은 강조하고, 다른 요소들은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프레이밍(framing)은 이러한 프레임을 행하는 것이다. Entman은 프레이밍을 할 때 반드시 선택성(selection)과 현저성(salience)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현저성이란 선택한 정보를 수용자가 더 쉽게 알아차리고, 의미 있고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현저성이 높아질수록

록 수용자가 정보를 더 쉽게 지각하고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Entman의 정의를 차용하여 이미나(2015)는 프레이밍을 프레임하기, 즉 '메시지의 특정 요소를 선택하고 두드러지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2) 프레이밍 효과와 미디어 프레이밍

Kahneman과 Tversky(1982)는 선택 상황에서 대안들이 어떻게 프레이밍 되느냐에 따라 수용자들이 각각의 안에 대한 선호도를 달리하였을 때, 그 각각의 프레이밍이 선택에 미친 영향을 가리켜 '프레이밍 효과'라고 명명하였다.

프레이밍 효과를 미디어에 적용하면 미디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즉 어떻게 프레이밍하느냐에 따라 미디어 수용자의 해석과 판단,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미디어 프레임은 '어떤 이슈를 선별하고 그 이슈의 특정한 측면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강화함으로써 미디어 수용자들이 그 측면을 인지하고 그 측면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해석 및 평가하도록 구성된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양문석, 2001).

뉴스 프레임 효과 연구에 따르면, 뉴스의 내용과 중요성이 뉴스 수용자의 인식 및 의견에 끼치는 영향력 또한 중요하지만, 뉴스 프레임 즉 뉴스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식 그 자체가 뉴스에서 다루는 이슈에 대한 해석과 의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같은 사회문제를 다루더라도 그에 대한 스토리 전개 방법과 관점 및 결과에 대한 함의가 다를 때, 그 텍스트는 상이한 프레임을 갖는다고 가정되며, 서로 다른 텍스트 프레임을 접한 학습자는 그 사회문제에 대한 해석과 의견이 달라지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추정된다(이미나, 2015).

이러한 프레임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회문제의 대부분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고 그로부터 다양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허석재, 2011). 프레임이 사회문제의 특정 요소나 특징을 강조하여

복잡한 사회문제를 몇 개의 핵심 측면으로 줄임으로써, 사회문제의 여러 함의 가운데 특정한 함의에 이르도록 수용자들의 사고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Zaller와 Feldman(1992)의 연구는 정보와 관련한 사고의 활성화를 다루었다. 이들은 수용자가 모든 사항을 다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인지 체계에서 최근에 사용되거나 접근된 개념을 추출하여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프레임 효과 이론은 이러한 사고의 활성화를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한 이론으로, Price와 Tewksbury(1997)는 ‘프레임화’된 뉴스 보도가 특정한 지식 구조를 활성화하며, 사고가 활성화되는 패턴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간 교육학 분야에서는 프레이밍 효과에 관한 연구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아 왔으나, 최근 들어 사회과교육 분야에서도 텍스트 등의 프레이밍에 따른 효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과서 텍스트 연구 등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탐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텍스트의 프레이밍 양식이 학생들의 사회문제 해결 행동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이미나(2011, 2012)의 연구, 빈곤층에 속한 한 개인의 이야기를 구체적이고 감성적으로 프레이밍한 텍스트가 통계 자료와 논리를 동원하여 빈곤 문제를 이성적으로 프레이밍한 텍스트보다 피험자들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더 잘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밝힌 최영아(2016)의 연구 등이 그 예이다.

미디어 프레이밍 효과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교육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문화 이슈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학습할 때는 학습자들이 행동 실천 의지를 갖추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접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텍스트를 매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최영아, 2016). 미디어 접근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영상 매체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 자료들이 교수·학습 자료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교육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미디어 프레이밍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미디어 프레이밍

국내 다문화 정책이 주류 문화를 강요하는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한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다문화주의적 관점으로 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광고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에서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들의 대부분은 상당 기간 동안 이주민들에게 동화를 강요하는 동화주의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마정미, 2010; 황경아·김태용, 2012; 나장함, 2013).

최근 들어 이주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미디어의 이주민 재현 양상 역시 변화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으로 다양한 속성의 이주민이 출연하고, 결혼 이주 남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괄목할 만한 변화이다(박미경·이현율, 2017). 그러나 이주민 재현 대상자의 속성은 다양해졌음에도 여전히 이주민을 우리 전통문화에 통합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민족주의적인 특징도 잔존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특히 아시아 출신 등의 유색인을 다룬 다문화 프로그램은 모국을 그리워하는 내용, 모국 방문과 가슴 아픈 이별 등 슬픔과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에피소드가 주를 이루어 타자화와 동화주의가 백인보다 유색인에게 빈번히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초희·김도연, 2018).

임정수(2012) 역시 미디어의 다문화 구성원 재현 관행이 지닌 문제점으로 다문화 구성원이 주로 온정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묘사되거나 일탈자 혹은 부적응자로 묘사되는 것,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 혹은 복지 정책의 대상자로서의 모습이 부각된다는 것 등을 꼽았다.

국내 언론의 다문화 아동·청소년 보도 특성 및 담론을 분석한 김지혜(2017)는 신문 기사에 나타난 담론을 한국사회의 지원 강조 프레임(수혜자, 시혜의 관점), 글로벌 인재 프레임(이중언어, 국제적 네트워크), 한국 사회 변화 강조 프레임, 한국 사회 적응 강조 프레임, 사회적 문제 강조 프레임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이 중 한국 사회 적응 강조 프레임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통하여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완전한 한국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프레임으로 전형적인 동화주의적 성

격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프레임이 강조되면, 한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이 곧 한국에 잘 적응하는 것이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는 것 역시 스스로 한국에 잘 적응하는 데 실패한 결과로 간주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서 찾을 우려가 있다. 반면 글로벌 인재 프레임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미래 인적자원이며, 이중언어와 문화를 잘 익히면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다문화주의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프레임이다(김지혜, 2017).

김지혜(2017)의 연구가 동화주의에 대한 우려와 다문화주의 지향을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공익광고의 메시지 유형이 결혼 이주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자의 신념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 ‘온정’과 ‘동화’ 메시지에 노출된 참여자들의 신념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반면, ‘공존’ 메시지에 노출된 참여자들의 신념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변화하였음이 밝혀졌다(황경아·김태용, 2012). 다문화 광고의 메시지는 모두가 한 사회의 일원으로 상생할 수 있다는 ‘공존’ 프레임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역설한 이 연구에서 ‘동화’ 메시지와 ‘공존’ 메시지는 각각 동화주의적 관점과 다문화주의적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프레이밍을 소재로 한 연구는 광고나 뉴스 보도를 주요 소재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다문화 미디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보다는 다문화 미디어가 이주민을 어떻게 재현하는지에 대한 미디어 담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4. 선행연구 검토

1)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내에서 수행된 다문화수용성과 관련한 초창기 연구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다문화수용성과 같은 태도나 성향

이 어린 시절에 내면화되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 만큼(김경근·황여정, 2012), 이와 같은 태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발달하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 다문화수용성 영향 요인 관련 논의들이 최근 들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중점을 둔 연구들에 따르면 성별(이정우, 2008; 장임숙, 2012; 김경근·황여정, 2012; 설은정·정옥분, 2012; 박혜숙, 2014; 이자형·김경근, 2014; 서봉언·조현미·김민영, 2015), 연령 및 학교급(박선희, 2014; 박혜숙, 2014), 학업 성적(이정우, 2008; 김경근·황여정, 2012), 부모의 학력 수준(황정미, 2010; 이진남·김영은·이기용, 2013) 등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 성적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심리·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있다. 이 중에서 연구 대상에 중학생을 포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경근·황여정(2012)의 연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자아효능감, 평등주의 성향이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인종을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석원(2014)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다문화 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며,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 교육 경험이 학교 다문화 분위기를 매개로 다문화수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아(2019)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학교 풍토가 중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문화교육 경험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다문화교육 경험의 긍정적인 효과는 가까운 친구의 다문화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구하라 외, 2021).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을 종단적으로 연구한

김동진(2019) 역시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다문화수용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가 종속 변인인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는 다문화 접촉 경험, 대중매체를 통한 외국인·이주민 관련 내용 접촉 경험, 일상에서의 외국인·이주민 목격 빈도, 다문화 교육 및 활동 경험 등과 같은 다문화 경험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바 있다. 이주 배경 집단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이나 관계 유무에 따라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비교한 결과, 이주 배경 집단과 관계있는 집단이 관계없는 집단에 비해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상에서 이주민이나 외국인을 자주 목격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김이선 외, 2022).

요컨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는 성별, 연령 및 학교급, 학업 성적, 부모의 학력 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긍·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증명하고 있다.

2) 미디어 프레이밍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문화 관련 미디어 연구 역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변화를 지각하고 그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미디어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정연구 외, 2011). 그러나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 혹은 우려가 적지 않음에도 직접적으로 미디어 효과의 검증을 시도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다문화 미디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는 성인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러한 실험 연구보다도 단순 미디어 접촉 빈도의 영향력 혹은 미디어가 다루는 내용 그 자체를 분석한 미디어

어 담론이 주를 이루고 있어 영상 미디어의 프레이밍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두예슬·김경근(2022)의 연구에서는 간접 접촉으로서 대중매체를 통하여 외국인 또는 이주민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노출된 빈도가 중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반면, 대중매체를 통하여 외국인 또는 이주민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노출된 빈도는 중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강한 부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 접촉이 우리나라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남보영·홍이준(2021)의 연구 결과 역시 대중매체 속 긍정적인 외국 이주민, 피해를 당하는 외국 이주민은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대중매체 속 위협적인 외국 이주민은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 간접 접촉 경험이 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로는 최재우·강운선(2015), 현영권(2016) 등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최재우·강운선(2015)의 연구에서는 이주민에 관한 중학생의 매체 접촉 경험 유형이 학습자 특성 변인(성별 및 성적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문화수용성 태도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영권(2016) 또한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 경험이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김유란(2012)은 서로 다른 영상물 프레이밍이 중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에 따라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성인 대상의 연구이기는 하나 대중매체의 이주민 재현이 성인들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신동훈·양경은(2020)의 연구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선량한 모습 혹은 피해자의 처지에 놓여 있는 이주민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경우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위협적인 모습의 이주민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경우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적절한 매개 접촉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미디어에서 재현된 이미지가 다문화수용성 태도를 형성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일부 연구에서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의 영향력에 관심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미디어 접촉 빈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이주민의 모습을 긍정 혹은 부정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살펴보는 정도에 머물렀다. 대중매체에서 재현되는 이주민이 다양한 모습을 띠 수 있음에도 미디어 속 이주민을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로 양분하는 것은 이주민에 관한 담론 구도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위험을 내포하므로(신동훈·양경은, 2020), 보다 복합적인 차원의 프레이밍 효과에 관한 연구를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가설

본 연구는 미디어 프레이밍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에 따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등 다문화수용성의 세 가지 하위 요소 각각에 따른 하위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 가설과 하위 가설은 다음과 같다.

<주 가설>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다문화주의 vs. 동화주의)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위 가설>

- 1)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주의 프레이밍과 동화주의 프레이밍이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이다.
- 2)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주의 프레이밍과 동화주의 프레이밍이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이다.
- 3)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주의 프레이밍과 동화주의 프레이밍이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형식적 조작기로 추상적 사고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가치 체계와 외부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이나 태도는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발달하지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을 의식하고,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중학생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다(최재우·강운선, 2016).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중학생 시기는 다양한 대인관계의 경험을 통하여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며 자신과 타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나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다문화수용성과 같은 태도는 어린 시절부터 내면화되고 전 생애에 걸쳐 지속하여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청소년기는 성인기와 비교해 가치관의 변화가 더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로,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교육이 가치관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 또한 크다. 따라서 이 같은 태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발달하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 수준과 그 결정 기제를 살펴보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김경근·황여정, 2012).

또한 현행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다문화적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본 연구 역시 미디어와 다문화 사회에 초점을 맞춰 다문화 미디어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만큼 중학생들이 적절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중 본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계성을 지닌 성취기준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사회과 교육과정 중 본 연구 관련 성취기준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9사(일사)01-03] 사회집단의 의미	[9사(일사)01-03] 우리 사회에 나

를 이해하고, 사회집단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갈등의 사례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타나는 다양한 갈등과 차별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처하는 시민의 자질에 대해 토의한다.
[9사(일사)02-03]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가진다.	[9사(일사)02-03] 여러 집단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 사례들을 조사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하여 토의한다.
[9사(일사)12-02] 한국 사회 변동의 최근 경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탐구한다.	[9사(일사)12-01]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사회 변동에 대해 조사하고, 이러한 사회 변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 여건상의 한계로 인하여 연구 대상의 지역을 서울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다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2)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전체 다문화 학생 168,645명 중 약 44.2%에 해당하는 74,564명의 다문화 학생들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문화 구성원과의 접촉 빈도가 타 지역 학생들과 비교해 현저히 높을 가능성이 큰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목표 연구 참여자 수를 500명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이미나(2011) 등 사회과교육에 프레이밍 효과를 적용한 선행연구와 김민정(2017), 고정아(2019) 등 중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최근 연구를 참조한 결과이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중학교 세 곳을 편의표집하고, 학급 수 및 학급 당 학생 수가 학교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당 4~6개의 학급을 표집하였다. 영상 처치 및 설문은 사회 수업 시간 중에 이루어졌는데, 연구 대상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

어 공통적으로 사회 교과가 편성되어 있는 학년이 3학년인 관계로, 세 학교 모두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총 372명의 중학생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학생이 다문화 가정 구성원일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사례 역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측정된 356명의 사례를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교 3학년 학생 356명의 배경 정보 특성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연구 참여자의 배경 정보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83	51.4
	여자	173	48.6
	합계	356	100
다문화 친구 유무	있음	175	49.2
	없음	181	50.8
	합계	356	100
다문화 미디어 접촉 빈도	본 적 없음	30	8.4
	4개월~1년에 1회 정도	124	34.8
	1개월에 2~3회 정도	145	40.7
	일주일에 1회 정도	30	8.4
	일주일에 2회 이상	27	7.6
	합계	356	100

학업 성적 수준	매우 잘한다.	63	17.7
	잘하는 편이다.	108	30.3
	보통이다.	131	36.8
	못하는 편이다.	37	10.4
	매우 못한다.	17	4.8
	합계	356	100
다문화 가정 여부	다문화 가정	16(제외)	4.3
	비다문화 가정	356	95.7
	합계	372	100

3. 연구 변인

1) 종속 변인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은 다문화수용성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2012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단위로 실시된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조사(민무숙 외, 2012; 안상수 외, 2015; 김이선 외, 2018; 김이선 외, 2022) 연구에서 활용된 청소년용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A)를 사용하였다.

2012년 일반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조사와 별도로 진행된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 사용된 청소년용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A)는 6점 척도로 개발된 일반인용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와는 달리 5점 척도로 개발되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⑥ 매우 그렇다’의 6점 척

도는 ‘보통이다’의 중간값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여서 응답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중간값의 선택이 가능한 5점 척도가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편견이나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의 경우, 응답자들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아 중간값을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응답 경향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서 중간값이 없는 6점 척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고(안상수 외, 2015),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부터는 일반 국민 조사와 청소년 조사가 함께 시행되면서 5점 척도였던 청소년용 진단도구 역시 일반인용 진단도구와 마찬가지로 6점 척도로 개편되었다. 이후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는 2015년에 개편된 청소년용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A)가 활용되고 있으며(안상수 외, 2015; 김이선 외, 2018; 김이선 외, 202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2015년에 척도 점수가 개편된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A)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용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A)는 다문화수용성을 구성하는 주요 축을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3개 차원으로 설정하고, 총 8개의 하위 구성 요소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구성한 다문화수용성 관련 설문 항목은 크게 두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설문 문항은 총 34개이다. 첫 번째 영역은 다문화수용성의 하위 요소인 다양성(1-13번)과 관계성(14-26번)을 측정하기 위한 26개 문항, 두 번째 영역은 다문화수용성의 또 다른 하위 요소인 보편성을 측정하기 위한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산출되는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지수(KMAI-A)는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부정적 문항의 경우 결과 산출 시 역부호화(reverse coding)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문항 수는 34개이며 6점 척도이므로 측정 원점수의 합계는 204점이 된다. 그런데 다문화수용성은 지수를 간명화하고자 전체 점수를 0~100점 단위의 환산 점수로 변환하고, 이 과정에서 요인별 가중치를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김이선 외, 2022). 가중치는 민무숙 외(2010)의 연구와 안상수 외(2015)의 연구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현재 사용하는 가중치

는 안상수 외(2015)의 것으로 본 연구 역시 이와 동일하게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의 배열과 역부호화 처리된 문항 그리고 하위 구성 요소별 가중치는 <표 III-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I-3> 청소년용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원점수의 채점:
문항 배열, 역부호화 문항 및 가중치**

하위 척도		문항 번호	역부호화 문항	문항 수	총점	가중치
척도 전체		I -1)~ I -26), II -1)~ II -8)	아래 참조	34	204	100
다양성	문화개방성	I -1)~ I -4)	I -4)	4	24	11
	국민정체성	I -5)~ I -8)	4개 문항 전체	4	24	13
	고정관념 및 차별	I -9)~ I -13)	5개 문항 전체	5	30	16
관계성	일방적 동화 기대	I -14)~ I -17)	4개 문항 전체	4	24	11
	거부·회피 정서	I -18)~ I -22)	5개 문항 전체	5	30	15
	상호교류행동 의지	I -23)~ I -26)	-	4	24	13
보편성	이중적 평가	II -1)~ II -4)	4개 문항 전체	4	24	11
	세계시민행동 의지	II -5)~ II -8)	-	4	24	10

위와 같이 도출한 다문화수용성의 하위 구성 요소별 가중치를 대입하여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지수의 수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지수(KMAI-A)

$$= (11 \times \text{문화개방성}) + (13 \times \text{국민정체성}) + (16 \times \text{고정관념 및 차별}) \\ + (11 \times \text{일방적 동화기대}) + (15 \times \text{거부·회피 정서}) + (13 \times \text{상호교류행동 의지}) \\ + (11 \times \text{이중적 평가}) + (10 \times \text{세계시민행동의지})$$

이로써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0부터 100까지의 점수 범위를 갖는 지수로 산출되며, 이러한 지수를 통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다문화수용성 진단 도구의 34개 문항 척도는 ‘1.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6. 매우 그렇다’까지의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다문화수용성 진단 도구를 통하여 얻은 원점수 평균을 곧바로 적용할 경우, 최솟값이 0이 아닌 지수 값이 되므로 상대적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안상수 외, 2015).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지수를 산출하였다.

$$\text{다문화수용성 지수(KMAI)} = \frac{\sum_{j=1}^8 w_j \bar{x}_j - \sum_{j=1}^8 w_j}{(r-1) \times \sum_{j=1}^8 w_j} \times 100$$

위 수식에서 \bar{x}_j 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측정변수 j의 평균값이고, r은 측정변수의 Likert 척도의 범위로,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는 6점 척도이므로 r=6이 된다. w_j 는 측정변수 j의 비율로 환산된 가중치이다. 따라서 위 수식에 나타난 8개 하위 구성 요소의 가중치 합($\sum_{j=1}^8 w_j$)은 100이 된다(안상수 외, 2015).

<표 III-4>는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A)의 전체 및 하위 구성 요소별 내적 합치도를 나타낸다.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KMCI-A)는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도를 확보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34개 측정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이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소인 다양성 13개 문항 간의 계수는 .91, 관계성 13개 문항 간 계수는 .91, 보편성 8개 문항 간 계수는 .80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사용된 측정 도구는 신뢰도가 확보된 도구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4> KMCI-A의 전체 및 하위 구성 요소별 내적 합치도

구분	본 연구	김이선 외(2022)
KMCI-A 척도 전체(34문항)	.95	.95
다양성 차원(13문항)	.91	.90
관계성 차원(13문항)	.91	.91
보편성 차원(8문항)	.80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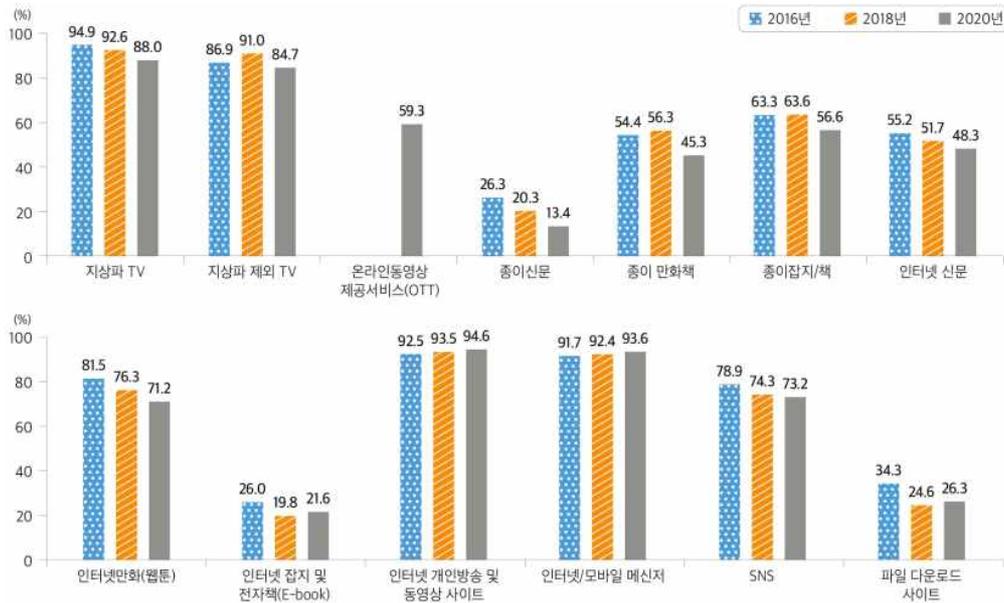
2) 독립 변인

본 연구의 처치 변인은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으로, 다문화주의 프레임의 영상 미디어와 동화주의 프레임의 영상 미디어를 사용하였다. 매개 접촉은 TV, 영화, 라디오, 신문, 사진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영상 미디어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지닌 매체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다(황미영, 2019).

사회과교육에서의 프레이밍 효과를 검증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텍스트, 이미지 등 시각 미디어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가 영상 미디어에 주목한 것은 최근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그림 III-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인터넷 개인방

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이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비해 종이 신문이나 종이 잡지/책 등과 같은 인쇄 매체의 이용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림 III-1] 청소년의 매체 이용률: 연도별(김지연 외, 2020)



특히 10대 청소년의 60% 이상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가운데, 유튜브 이용이 성별을 불문하고 청소년이 가장 즐겨하는 미디어 활동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배상률·이창호·김남두, 2021), 오늘날 영상 미디어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미디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별적인 프레이밍을 보여주기 위한 미디어로 영상 미디어를 선정하였다.

다문화주의 프레임의 영상 미디어와 동화주의 프레임의 영상 미디어는 TV 지상파 공영방송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문화 집단의 구성원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회차 중 각 프레이밍을 특징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 회차의 영상들을 일차적으로 선별하였다. 이때 연구 참여자들이 별도의 비용 지불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개별적으로 영상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 방송사에서 Youtube

(<https://www.youtube.com/>)에 탑재한 영상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영상 시청 시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프레이밍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어 1차로 선별된 영상들 중에서 영상 길이가 10분 미만인 영상은 제외하였다. 또한 다문화주의 프레이밍과 동화주의 프레이밍의 영상 길이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에도 영상 길이 차이로 인한 왜곡 효과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영상 길이가 비슷한 것들끼리 묶었더니 영상 길이가 30분 내외인 영상이 프레이밍별로 2개씩이었다.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과교육 및 다문화교육 전공자 세 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면 타당도를 확보한 결과 최종적으로 프레이밍별 영상을 1개씩 선정하였다. 각 프레이밍 처치에 따라 제공된 영상 매체 내용은 <표 III-5>와 같다.

<표 III-5> 프레이밍 처치별로 제공되는 영상 매체

		
프레이밍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프로그램명	인간극장	인간극장
방송사명	KBS1	KBS1
에피소드명	투이 사장님 좋아요 1부	마리의 남자들 1부
영상 길이	32:38	31:29
영상 링크	https://youtu.be/fmcBp-AEZ6o	https://youtu.be/wemx6QQ3kZo

회차 정보	<p>전라북도 정읍시, 이국적인 아열대 채소 농장. 베트남에서 온 투이 씨가 개인 방송을 통해 베트남 채소를 팔고 있다. 결혼 8년 차, 남편 수연 씨는 아내를 위해 베트남에서 장모님과 처제도 모셔왔다. 1년 중에 가장 바쁜 여름, 온 가족이 하우스에 매달려서 일한다.</p>	<p>늦여름의 열기가 한창인 전라남도 함평군, 두 형제가 아빠의 옥상 물청소를 거두고 나섰다. 그런데 청소는 뒷전, 물장난에 훌쩍 젖은 삼부자에게 잔소리를 쏟아내는 마리 씨.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 야무진 아가씨는 이미 토종 전라도 아낙이 다 되었다.</p>
-------	--	---

3) 통제 변인

앞서 제시한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간의 관계를 엄밀히 검증하려면 처치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변인들에는 성별, 연령, 성적, 타 문화에 대한 관심, 이주민과의 접촉 경험 등을 들 수 있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질문이기도 한 성별은 시민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 중 하나로, 청소년의 시민성을 조사한 국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성적 소수자·노약자·빈곤층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 수준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임정수, 2015). 최재우·강운선(2015)의 연구에서는 이주민에 관한 중학생의 매체 접촉 경험 유형이 다문화수용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및 성적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윤인진·송영호(2011)는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을 비롯한 연령, 교육 수준, 주관적 계층 의식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외국인과의 접촉 여부를 강조하였다. 김혜숙 외(2011)의 연구

에서도 외국인과의 가까운 접촉을 경험하고 접촉의 빈도가 높을수록 상대방에 대한 불안의 감정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연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다문화 친구 유무, 다문화 미디어 접촉 빈도, 학업 성적 수준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4. 연구 절차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은 프레이밍 처치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두 집단은 각각 다문화주의 프레이밍 영상과 동화주의 프레이밍 영상 매체에 노출되었다. 프레이밍 효과와 관련한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프레이밍 처치별로 50:50의 비율로 무선 할당을 통해 집단 배정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연구 참여자용 동의서 배포 및 수거는 서면으로 하되, 연구 참여자가 개별로 영상을 시청한 후 설문에 응답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는 것이 서면 설문지를 활용하는 것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바, 구글 폼을 활용하여 제작한 온라인 설문 양식을 배포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학생들은 QR코드를 통해 설문 링크에 접근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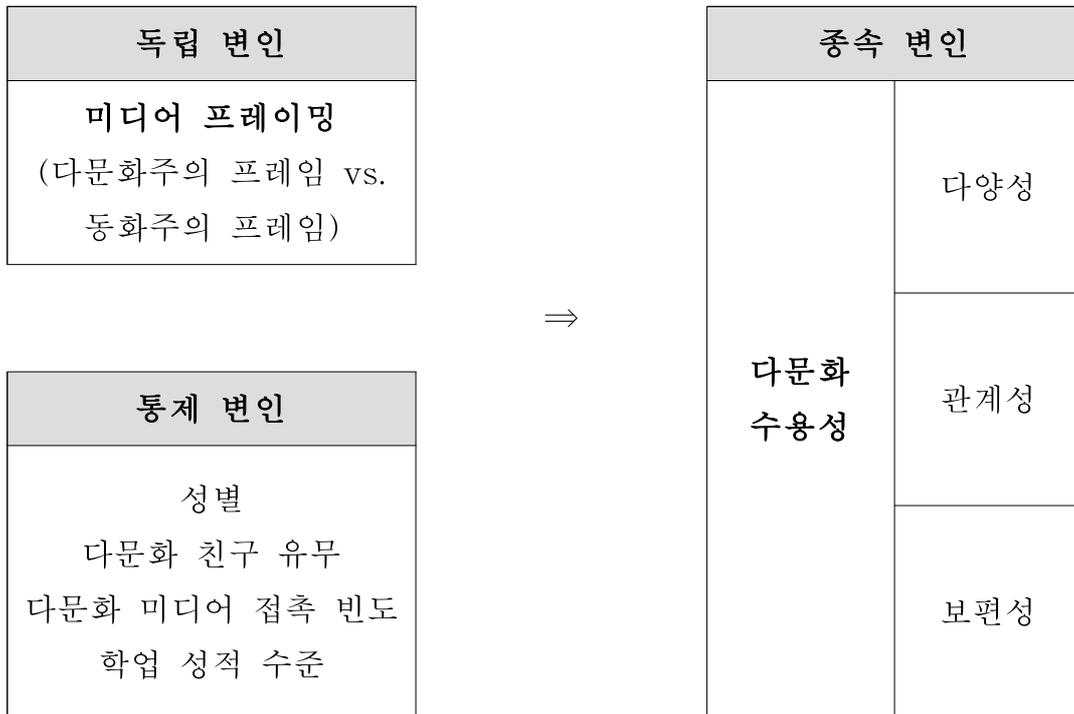
프레이밍 처치에 따라 각각의 집단으로 할당된 학생들은 다문화주의 프레임의 영상 매체 또는 동화주의 프레임의 영상 매체에 노출된 후, 종속 변인인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에 응답하였다.

모든 연구 절차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연구 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 후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설문을 강요하지 않았고, 참여 도중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5. 분석 방법

앞서 살펴본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을 토대로 구성한 본 연구의 분석 틀은 [그림 III-2]와 같다.

[그림 III-2] 본 연구의 분석 틀



본 연구의 주 가설은 미디어 프레임 양식이라는 독립 변인이 다문화수용성이라는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계 분석하기 위해 SPSS 29.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 후, 먼저 척도 문항 간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추출하였다. 이어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다른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독립 변인인 미디어 프레임 양식이 종속 변인인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_i = a + b_1X_1 + b_2X_2 + b_3X_3 + b_4X_4 + b_5X_5 + e_i$$

Y_i : 다문화수용성

(Y_1 :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

Y_2 :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

Y_3 :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

a : 상수

X_1 :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다문화주의 프레이밍=1, 동화주의 프레이밍=0)

X_2 : 성별(남학생=1, 여학생=0)

X_3 : 다문화 친구 유무(유=1, 무=0)

X_4 : 다문화 미디어 접촉 빈도(본 적 없음=1, 4개월~1년에 1회 정도=2, 1개월에 2~3회 정도=3, 일주일에 1회 정도=4, 일주일에 2회 이상=5)

X_5 : 학업 성적 수준(매우 못한다=1, 못하는 편이다=2, 보통이다=3, 잘하는 편이다=4, 매우 잘한다=5)

e_i : 오차항

통제 변인인 성별, 다문화 친구 유무, 다문화 미디어 접촉 빈도, 학업 성적 수준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변인은 일괄투입(ENTER) 방식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아울러 범주형 변인인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 성별, 다문화 친구 유무는 모두 더미 변인으로 처리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수준

독립 변인인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이 종속 변인인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이전에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중학생 356명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전체 연구 참여자의 다문화수용성 수준(N=356)

구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총점=100)	0.93	100	70.70	16.64
다양성 차원 (총점=100)	0	100	71.70	18.20
관계성 차원 (총점=100)	0	100	72.62	17.66
보편성 차원 (총점=100)	4.76	100	64.68	18.43

분석 대상인 중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 지수 평균은 70.70점으로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김이선 외, 2022)의 일반 국민 다문화수용성 지수인 52.27점을 상회하고,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지수인 71.39점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수용성의 하위 요소별 평균은 다양성 차원이 71.70점, 관계성 차원이 72.62점, 보편성 차원이 64.68점으로, 관계

성 차원, 다양성 차원, 보편성 차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를 범주형 변수인 성별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여학생 평균이 73.19점, 남학생 평균이 68.34점으로 여학생의 다문화수용성 평균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표준편차가 높아 개인 간의 편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연구 참여자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성별)

구분 (남자=183명, 여자=173명)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체	0.93	32.71	100	100	68.34	73.19	17.47	15.37
다양성 차원	0	29.20	100	100	69.98	73.52	19.32	16.79
관계성 차원	0	21.75	100	100	69.88	75.52	18.41	16.39
보편성 차원	4.76	17.14	100	100	61.78	67.74	19.77	16.40

2. 프레임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 양식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IV-3>과 같이 주 가설의 종속 변인에 해당하는 다문화수용성과 하위 가설의 종속 변인에 해당하는 다문화수용성의 하위 요인 모두 미디어 프레임 양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3> 가설 검증을 위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프레이밍)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t	p
전체	다문화주의	177	72.105162	19.0660506	.414	.679
	동화주의	179	71.305866	17.3446476	.414	.679
다양성 차원	다문화주의	177	73.783989	17.3388074	1.235	.218
	동화주의	179	71.473096	17.9484533	1.236	.217
관계성 차원	다문화주의	177	65.365886	19.0772565	.701	.484
	동화주의	179	63.995744	17.7876166	.701	.484
보편성 차원	다문화주의	177	71.457784	16.9399169	.856	.393
	동화주의	179	69.947504	16.3437783	.856	.393

이에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독립 변인 이외의 혼란 요인에 해당하는 변량들을 효과의 크기로 잡아내어 오차 변량을 줄여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정한 4개의 통제 변인을 회귀 모델에 넣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프레이밍과 다문화수용성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인자(VIF: Variance Influence Factor)를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공차한계가 0.1보다 작거나 분산팽창인자(VIF)가 10 이하일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IV-4>와 같이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0.365$,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2.9%(수정된 R^2 은 11.7%)로 나타났다($R^2=.129$, 수정된 $R^2=.117$). Durbin-Watson 통계

량은 1.645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는 문제가 없으며, 분산팽창인자(VIF)도 모두 10 이하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IV-4> 주 가설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회귀 계수	표준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74.935	3.905		19.190	<.001		
미디어 프레이밍	1.311	1.662	.039	.789	.431	.995	1.005
성별	-4.583	1.660	-.138	-2.761	.006**	.998	1.002
다문화 친구 유무	8.259	1.707	.249	4.839	<.001***	.943	1.060
다문화 미디어 접촉 빈도	.878	.853	.053	1.029	.304	.950	1.053
학업 성적 수준	-2.597	.796	-.164	-3.262	.001**	.988	1.012

<모델 요약>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359	.129	.117	15.6372395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모형	12672.153	5	2534.431	10.365	<.001***
잔차	85583.141	350	244.523		
전체	98255.294	355			

(*: p<.05, **: p<.01, ***: p<.001)

그러나 검증 결과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t=.789$, $p=.431$)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주 가설은 기각되었다.

한편 4개의 통제 변인 중 다문화 미디어 접촉 빈도를 제외하면 성별 ($t=-2.761$, $p=.006$)과 학업 성적 수준($t=-3.262$, $p=.001$)은 $p<.01$ 수준에서, 다문화 친구 유무($t=4.839$, $p<.001$)는 $p<.001$ 수준에서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보였으며, 다문화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중학생이 다문화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중학생에 비해 더 높은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보였다. 또한 학업 성적 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통제 변인 중 성별의 경우,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성별을 꼽은 기존의 선행연구가 대부분 일관되게 여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남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석을 통해 밝혀진 다문화 친구 유무와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는 다른 문화나 이주민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접촉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접촉 이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주배경 집단과 관계있는 집단이 관계 없는 집단에 비해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높고, 일상에서 이주민이나 외국인을 자주 목격할수록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밝힌 김이선 외(2022)의 연구를 비롯하여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결론 내린 방향과도 일치한다.

다만 학업 성적 수준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는 기존 선행연구들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학업 성적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 수준 역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였을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학업 성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학생들이 스스로 지각한 자신의 학업 성적 수준을 응답하게 한 본 연구의 한계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식별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필고사 성적과 같은 객관적인 수치를 요구하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지각한 자신의 학업 성적 수준을 ‘매우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못하는 편이다.’, ‘매우 못한다.’ 중 하나로 응답하게 하여 해당 변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IV-5> 연구 참여자의 학업 성적 수준 응답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매우 잘한다.	63	17.7	17.7
잘하는 편이다.	108	30.3	48.0
보통이다.	131	36.8	84.8
못하는 편이다.	37	10.4	95.2
매우 못한다.	17	4.8	100
합계	356	100	100

그 결과 <표 IV-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연구 대상의 3분의 2 이상이 자신의 학업 성적 수준을 중상위권에서 중위권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잘한다.’라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연구 참여자 중 자신의 성적을 상위권 또는 중위권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84.8%에 달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성적이 최상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하위권이라고 쉽게 답하지는 못한 것이다. 즉 학생들이 대체로 자신의 성적을 다소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다문화 미디어 접촉 빈도와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 또한 다문화 콘텐츠 시청량이 다문화수

용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낸 이현정 외(2013) 등의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역시 다문화 미디어 접촉 빈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지각한 접촉 빈도를 응답하게 함으로써 응답에 왜곡이 일어날 여지가 있었던 본 연구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혹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 흐름에 따라 다문화 이슈에 대한 각종 해법들이 여러 미디어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바, 본 연구의 프레이밍에 영향을 받기 이전에 이미 각자가 수용했던 정보에 의존하여 질문에 응답한 결과, 어떤 유형의 다문화 미디어 콘텐츠를 접했느냐에 따라 제각기 다른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2) 프레이밍과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

하위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IV-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t=.351, p=.725$)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주의 프레이밍과 동화주의 프레이밍이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이다.’라는 하위 가설 1은 기각되었다.

<표 IV-6> 하위 가설 1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회귀 계수	표준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77.030	4.357		17.680	<.001		
미디어 프레이밍	.651	1.854	.018	.351	.725	.995	1.005

성별	-3.306	1.852	-.091	-1.785	.075	.998	1.002
다문화 친구 유무	7.932	1.904	.218	4.166	<.001***	.943	1.060
다문화 미디어 접촉 빈도	.595	.952	.033	.626	.532	.950	1.053
학업 성적 수준	-2.739	.888	-.158	-3.083	.002**	.988	1.012

<모델 요약>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306	.094	.081	17.4476665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모형	11036.950	5	2207.390	7.251	<.001***
잔차	106547.373	350	304.421		
전체	117584.323	355			

(*: p<.05, **: p<.01, ***: p<.001)

한편 4개의 통제 변인 중 다문화 친구 유무($t=4.166$, $p<.001$)는 $p<.001$ 수준에서, 학업 성적 수준($t=-3.083$, $p=.002$)은 $p<.01$ 수준에서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중학생이 다문화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중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 또한 스스로 지각한 학업

성적 수준이 낮을수록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3) 프레이밍과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

하위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IV-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t=1.197, p=.232$)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주의 프레이밍과 동화주의 프레이밍이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이다.’라는 하위 가설 2는 기각되었다.

<표 IV-7> 하위 가설 2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회귀 계수	표준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77.036	4.156		18.534	<.001		
미디어 프레이밍	2.118	1.769	.060	1.197	.232	.995	1.005
성별	-5.388	1.767	-.153	-3.049	.002**	.998	1.002
다문화 친구 유무	8.392	1.817	.238	4.620	<.001***	.943	1.060
다문화 미디어 접촉 빈도	.780	.908	.044	.860	.391	.950	1.053
학업 성적 수준	-2.587	.847	-.154	-3.052	.002**	.988	1.012

<모델 요약>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353	.124	.112	16.6447941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모형	13761.843	5	2752.369	9.935	<.001***
잔차	96967.210	350	277.049		
전체	110729.054	355			

(*: p<.05, **: p<.01, ***: p<.001)

한편 주 가설과 마찬가지로 4개의 통제 변인 중 다문화 미디어 접촉 빈도를 제외하면 성별($t=-3.049$, $p=.002$)과 학업 성적 수준($t=-3.052$, $p=.002$)은 $p<.01$ 수준에서, 다문화 친구 유무($t=4.620$, $p<.001$)는 $p<.001$ 수준에서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다문화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중학생이 다문화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중학생보다 더 높았다. 또한 스스로 지각한 학업 성적 수준이 낮을수록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4) 프레이밍과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

하위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IV-8>에 나타난 것과 같이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t=.571$, $p=.569$)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주의 프레이밍과 동화주의 프레이밍이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이다.’라는 하위 가설 3은

기각되었다.

<표 IV-8> 하위 가설 3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회귀 계수	표준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66.267	4.336		15.284	<.001		
미디어 프레이밍	1.053	1.845	.029	.571	.569	.995	1.005
성별	-5.618	1.843	-.153	-3.048	.002**	.998	1.002
다문화 친구 유무	8.674	1.895	.236	4.577	<.001***	.943	1.060
다문화 미디어 접촉 빈도	1.668	.947	.090	1.762	.079	.950	1.053
학업 성적 수준	-2.321	.884	-.132	-2.625	.009**	.988	1.012

<모델 요약>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353	.125	.112	17.3625767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모형	15029.218	5	3005.844	9.971	<.001***
잔차	105510.674	350	301.459		
전체	120539.892	355			

(*: p<.05, **: p<.01, ***: p<.001)

한편 주 가설 및 하위 가설 2와 마찬가지로 4개의 통제 변인 중 다문화 미디어 접촉 빈도를 제외하면 성별($t=-3.048, p=.002$)과 학업 성적 수준($t=-2.625, p=.009$)은 $p<.01$ 수준에서, 다문화 친구 유무($t=4.577, p<.001$)는 $p<.001$ 수준에서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다문화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중학생이 다문화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중학생보다 더 높았다. 또한 스스로 지각한 학업 성적 수준이 낮을수록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에 따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을 다문화주의 프레이밍, 동화주의 프레이밍으로 구분하고,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다문화주의 vs. 동화주의)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주 가설과 세 가지 하위 가설(‘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주의 프레이밍과 동화주의 프레이밍이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이다.’,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주의 프레이밍과 동화주의 프레이밍이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이다.’,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주의 프레이밍과 동화주의 프레이밍이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이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가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중학교 세 곳을 표집하고, 각 학교의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다문화주의 프레이밍 영상과 동화주의 프레이밍 영상을 처치한 후, 종속변인인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이 다문화 가정 구성원일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사례 역시 제외한 결과 최종적으로 356부의 설문 자료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설문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디어 프레이밍 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을 독립 변인으로, 성별, 다문화 친구 유무, 다문화 미디어 접촉 빈도, 학업 성적 수준을 통제 변인으로, 다문화수용성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주의 프레이밍 영상을 처치한 집단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동화주의 프레이밍 영상을 처치한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지는 못하였다. 다문화수용성을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정한 세 하위 가설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따라서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미디어 프레이밍 양식(다문화주의 프레이밍 영상 vs. 동화주의 프레이밍 영상)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다문화 공익광고 메시지 유형을 비교한 황경아·김태용(2012)의 연구에서 ‘온정’과 ‘동화’ 메시지에 노출된 연구 참여자들의 결혼 이주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신념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반면, ‘공존’ 메시지에 노출된 참여자들의 신념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변화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 점화 효과(priming effect)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점화 효과란 먼저 경험한 자극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후 정보의 해석과 판단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도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양상과 경로 중 하나로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레이밍 영상 처치 시 두 집단 모두 동일한 주제의 정보가 제공되었다. 즉 다문화 집단의 구성원인 결혼 이주 여성을 전면에 내세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였으며, 프레이밍은 달랐으나 두 영상 모두 결혼 이주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담고 있었다. 즉 다문화라는 주제에 대해 충분히 프라이밍(priming)되어 있었다. 그런데 영상 프레이밍 처치 후 진행된 설문은 연구 일정상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실행되지 못함으로써 영상 미디어의 프레이밍 효과와 프라이밍 효과가 명확히 구분되지 못했을 수 있다. 위선 유도를 활용한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이 중학생들의 성편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가설이 채택되지 못한 송미리(2017)의 연구에서도 프라이밍 효과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방어적 왜곡(self-presentational bias)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사 도구로써 자기 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외현적 태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답을 하는 경우 이를 잡아내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처치 및 설문이 사회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만큼 학생들이 자신의 실제 태도보다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바람직한 태도’를 자신의 태도라고 방어적으로 답변했을 확률이 높다.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대체로 묻고자 하는 내용을 알아차리기 쉬운 편이었기에 교육적으로 기대하는 응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미나(2008)는 이러한 응답의 부정확성을 피하기 위하여 질문 자체가 반드시 편견이라고 볼 수 없는 중립적인 문장을 사용하여 스테레오타입을 측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용자들의 개인적 특성이 매체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매체 효과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최재우·강운선, 2015). 이는 매체의 내용이 수용자의 인지 구조에 내재화되는 과정에서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나 스키마에 따라 메시지를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Eagly & Wood, 1991). 매체의 내용 구성과 수용자 개인 변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다문화주의 프레이밍 영상을 시청한 학생은 개인 변인에 따라 영상 속 등장인물을 우리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긍정적 인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할 인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이주민들과 일자리 등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 인식할 경우, 이주민이 진학, 취업 등 향후 자신의 삶에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다문화주의 프레이밍 영상이 다문화 구성원을 긍정적으로 그려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시청한 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 제언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 미디어와 다문화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동화주의적 관점이 다문화 구성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되는 것을 경계하고, 효과성이 검증된 기존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미디어가 다문화 구성원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긍정·부정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다문화 구성원을 다루고 있는 미디어 중 상당수가 여전히 동화주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프레이밍 처치 도구로 활용된 두 영상들은 얼핏 보기엔 모두 다문화 구성원을 긍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동화주의 프레이밍 영상의 경우 결혼 이주 여성이 우리말을 유창하게 하고 한식을 잘 먹으며 김치를 담글 줄 아는 모습이 마치 바람직한 이주민의 모습인 것처럼 그려내고 있다. 해당 영상의 댓글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문화에 동화된, 즉 ‘한국인화’된 주인공의 모습을 칭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다문화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를 혼동하여 다문화 구성원을 우리 사회에 흡수, 동화시키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다문화주의 프레이밍 영상을 시청한 집단과 동화주의 프레이밍 영상을 시청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에서 동화주의가 지니는 위험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해석을 기존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통계상으로는 다문화수용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동화주의적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재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둘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본 연구에서 다문화수용성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통제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가 설정한 통제 변인 중에서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및 하위 요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어 온 바와 같이 성별과 다문화 친구 유무가 꼽혔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남학생과 여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성별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다각도로 탐구한 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 친구가 있는 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다문화 친구가 없는 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수준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외집단 접촉 기회가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킨다는 접촉 이론이 설득력 있는 이론임을 방증한다. 그러나 다문화 구성원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문화수용성은 지금 당장 다문화 구성원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문화 친구와의 직접 접촉이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매개 접촉과 같이 직접 접촉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접촉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학생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과 운영 방식이 지역별·학교별 특성에 따라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 및 한계점을 토대로 하여 후속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서울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들로 한정하였으나 연구 가설이 기각된 바, 연구 대상의 지역과 학교급을 달리하여 가설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자료 수집 여건의 한계로 편의표집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미디어 프레이밍 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해 대표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프레이밍 처치 도구를 다른 영상 미디어로 교체하여 연구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여건의 한계상 연구를 위해 새

롭게 제작된 영상이 아닌, 기존에 TV에서 방영되었던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일부 회차 영상을 프레이밍 처치 도구로 활용하였다. 영상 선정 과정에서 사회과교육 및 다문화교육 전공자들의 검토를 거쳐 안면 타당도를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본 연구만을 위해 프레이밍을 주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아니다 보니 연구자의 프레이밍 의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장면들도 포함되어 프레이밍 효과가 극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최근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 경향을 반영하여 프레이밍 처치 도구로 텍스트가 아닌 영상을 활용하되, 처치 도구를 선정함에 있어 TV 지상파 공영방송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제한을 둔 것은 TV 프로그램과 달리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영상은 조회수를 늘리고자 제목이나 내용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구성하여 수업 시간에 활용할 교육 자료로써 부적절한 경우가 상당수였기 때문이다. 성별을 불문하고 청소년이 가장 즐겨 이용하는 미디어 플랫폼이 유튜브라는 점을 고려하면 처치 도구를 TV 프로그램으로 한정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유튜브 영상을 엄격하게 선별하거나 프레이밍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를 자체적으로 제작함으로써 프레이밍 양식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더욱 엄밀하고 시의적절한 연구를 시도해볼 수 있다.

셋째, 종속 변인과 통제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선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주의 프레이밍 처치 집단과 동화주의 프레이밍 처치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 만약 이러한 결과가 앞서 언급한 방어적 왜곡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면 문항의 의도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게 다문화수용성 척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통제 변인 중 학업 성적 수준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앞서 연구 결과에서 언급했다시피 측정 도구의 한계로 인한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하여 학업 성적 수준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 연구 대상교로부터 학생들의 학업 성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여야 더욱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다문화교육을 통한 다문화수용성의 증진은 단 며칠 만에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실험 연구 및 설문 조사가 단기간에 이루어져 점화 효과가 발생할 여지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에서의 미디어 프레이밍 효과를 면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실험 및 관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문화교육은 ‘그들’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육이다. 다문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적응 교육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 사회의 모든 청소년들에 대한 시민교육이 되어야 한다. 다문화교육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는 데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바람직한 시민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다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인종, 언어, 문화, 종교 등을 달리하는 시민들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사회 통합의 원리를 모색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과제이다. 향후 다문화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나갈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민주 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교육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때이다.

참 고 문 헌

- 고정아(2019). 중학생이 지각한 학교 풍토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2015).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 교육부(202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2). 2022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유·초·중등교육통계편-. 한국교육개발원.
- 구정화·박윤경·설규주(2018).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정민사.
- 구하라·성상환·모경환(2021). 청소년의 다문화교육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중요 타인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0권 4호, pp. 61-80.
- 김경근·황여정(2012). 초중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교육, 제39권 1호, pp. 87-117.
- 김동진(2019).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혜·이은주·박윤경(2015). 다문화 영상 및 도서를 활용한 다문화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이주, 새로운 뿌리를 찾아서’ 주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48호, pp. 45-80.
- 김민정(2017).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란(2012).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태도에 따른 영상물 프레이밍 효과 연구 -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미·양옥경·이해영(2009). 다문화 사회, 한국. 나남.
- 김이선·최윤정·윤지소·이재경·문희영·이명진·양계민(2018).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여성가족부.
- 김이선·최윤정·정연주·장희영·이명진·양계민(2022). 2021년 국민 다문화수

- 용성 조사. 여성가족부.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최수정(2020).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지혜(2017). 한국언론의 다문화 아동청소년 담론 분석. 사회복지연구,
제48권 3호, pp. 57-81.
- 김초희·김도연(2018). 한국 다문화 TV 프로그램에서의 이주민·외국인
재현 - 장르별 차이와 시기별 변화. 한국언론학보, 제62권 3호,
pp. 309-341.
- 김혜숙(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
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1권 4
호, pp. 91-104.
- 김혜숙·김도영·신희천·이주연(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 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
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5권 2호, pp.
51-89.
- 나장함(2013). 일상적 다문화 대중교육 텍스트로서의 TV 기업 공익 광
고물에 대한 질적 분석. 열린교육연구, 제21권 1호, pp. 279-310.
- 남보영·홍이준(2021). 외국이주민과의 직접 접촉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
- 간접 접촉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7집 3호, pp. 181-208.
- 두예슬·김경근(2022). 한국 청소년의 이주민 접촉과 다문화 수용성 간 관
계. 교육문화연구, 제28권 5호, pp. 529-550.
- 마정미(2010). TV 광고 텍스트에 나타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고찰 - 공
익광고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제12권 4호, pp. 223-258.
- 맹진학(2009). 한국인의 다문화 배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에 관
한 다층분석. 사회복지정책, 제36권 3호, pp. 323-348.
- 모경환·차경수(2021). 사회과교육. 동문사.
- 민무숙·안상수·김이선·김금미·류정아·조영기·현보라(2010). 한국형 다문화
수용성 진단 도구 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민무숙·안상수·김이선·선보영·이명진(2012).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박미경·이헌율(2017). 가족주의 관점에서 본 KBS <이웃집 찰스>의 이주민 가족 재현 연구 - 이주 남성 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4호, pp. 12-24.
- 박선희(2014).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종단연구. 다문화와 인간, 제3권 2호, pp. 99-131.
- 박혜숙(2014). 초등 및 중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제44집, pp. 5-33.
- 배상률·이창호·김남두(202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I: 10대 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법무부(2020).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서봉언·조현미·김민영(2015).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 관련 요인 탐색. 다문화컨텐츠연구, 제19집, pp. 179-207.
- 설은정·정옥분(2012).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제19권 2호, pp. 91-114.
- 송미리(2017).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이 성편견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영(2010). 한국의 다문화의식: 다문화수용성의 원인분석. 민족연구, 제41호, pp. 74-194.
- 신동훈·양경은(2020). 일상 속 이주민 목격과 대중매체의 이주민 재현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46권 1호, pp. 111-139.
- 안상수·민무숙·김이선·이명진·김금미(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안상수·김이선·마경희·문화영·이명진(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양계민(2009).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4호, pp. 387-421.

- 양문석(2001). 수용자스키마가 미디어프레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계택(2007).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인 근로자의 인식. 노동리뷰, 제 11호, pp. 59-68.
- 윤인진·송영호(2007). 한국인의 소수자 및 다문화 관련 태도의 비교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 857-868.
- 윤인진·송영호(2009).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 579-591.
- 윤인진·송영호(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수용성. 통일문제연구, 제55호, pp. 143-192.
- 은지용·이윤정(2021). 미디어 비평에 기반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 다문화교육연구, 제14권 3호, pp. 143-172.
- 이건남·김영은·이기용(2013).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제26권 3호, pp. 1-14.
- 이명진·최유정·최셋별(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제11권 1호, pp. 63-85.
- 이미나(2008). 사회과 태도변화 연구결과에 대한 의문. 시민교육연구, 제 40권 1호, pp. 71-93.
- 이미나(2011). 사회문제해결 행동의도 향상을 위한 교과서텍스트 구성전략 연구 -기후변화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43권 4호, pp. 25-54.
- 이미나(2012). 사회과 텍스트의 프레임 양식이 사회문제해결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 제44권 4호, pp. 185-216.
- 이미나(2015). 사회문제의 일화 vs. 주제적 프레임 방식에 따른 인지·정의적 효과 비교. 시민교육연구, 제47권 3호, pp. 147-183.
- 이자형·김경근(2014). 한국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제23권 1호, pp. 53-77.
- 이정우(2008). 다양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태도. 사회과교육, 제47권

- 3호, pp. 297-320.
- 이지영(2013). 중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정·안재웅·이상우(2013). 다문화 콘텐츠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7권 3호, pp. 34-57.
- 이희은·유경한·안지현(2007). TV 광고에 나타난 전략적 다문화주의와 인종주의.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9호, pp. 473-561.
- 임정수(2012). 다문화 구성원의 미디어 노출 관행과 다문화교육적 대응. 다문화교육, 제3권 1호, pp. 69-87.
- 임정수(2015). 다문화 쟁점 활용 사회과 수업이 다문화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임숙(2012). 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이주인권 정책에 대한 태도. 지방정부연구, 제15권 4호, pp. 177-199.
- 정연구·송현주·윤태일·심훈(2011). 뉴스 미디어의 결혼이주여성 보도가 수용자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다문화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5권 2호, pp. 405-427.
- 정석원(2014).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영아(2016).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 향상을 위한 사회과 텍스트 구성 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재우·강운선(2015). 매체접촉경험이 중학생의 다문화수용성태도에 미치는 학습자 특성 변인과의 상호작용 -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5권 1호, pp. 89-114.
- 최지영·김재철(2015).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심리·사회적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제22권 2호, pp. 389-411.
- 추병완(2011). 아동의 편견 해소를 위한 교수 전략 개발 - 간접 접촉 이론을 기반으로 -. 초등도덕교육, 제36집, pp. 143-169.
- 한승준(2008).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2권 3호, pp. 463-486.

- 허석재(2011). 정치적 갈등과 일화적 프레임의 효과: ‘사이버 모욕죄’의 사례. 사회과학연구, 제19권 2호, pp. 264-292.
- 허석재·민영(2010). 사이버모욕죄 보도의 프레임 효과: 핵심가치와 귀인양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52권, pp. 48-68.
- 현영권(2018). 대학생의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 간접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심의 조절효과. 독서치료연구, 제10권 1호, pp. 45-65.
- 황경아·김태용(2012). 다문화 공익광고의 메시지 유형이 수용자의 신념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실험을 통한 양적 분석과 발성사고법(Think Aloud)을 통한 질적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제22호, pp. 257-305.
- 황미영(2019). 매개 접촉 활용 사회과 수업이 청소년의 연령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정미(2010).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제53권 4호, pp. 152-272.
-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 현·이동주(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llport, G. W. (1954/1979).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Addison-Wesley.
- Banks, J. A. (201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6th ed.). Pearson. 모경환 외 공역(2022).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 Bennett, C. I. (2001). Genres of research in multicultural educ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71 No. 2, pp. 171-217.
- Castles, S & Miller, M. J. (2009).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4th ed.). N.Y.: the Guilford Press.

- Eagly, A. H., & Wood, W. (1991). Explaining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meta-analytic perspect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17, pp. 306-315.
- Entman, R.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43, pp. 51-58.
- Kahneman, D. & Tversky, A. (1982). The psychology of preferences. *Scientific American*, Vol. 246 No. 1, pp. 160-173.
- Pettigrew, T. F., Tropp, L. R., Wagner, U., & Christ, O. (2011). Recent advances in intergroup contact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35 No. 3, pp. 271-280.
- Price, V., & Tewksbury, D. (1997). News values and public opinion: A theoretical account of media priming and framing. In Barnett, G., & Boster, F. J.(eds.).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s*, pp. 173-212. Greenwich, CT: Ablex.
- Race, R. (2012). *Multiculturalism and Education*. London & New York: Continuum.
- Sleeter, C. E., & Grant, C. A. (2003). *Making choic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Five approaches to race, class, and gender*(4th ed.). J. Wiley & Sons.
- Snow, D., & Benford, R. D. (1988). Ideology, frame resonance, and participant mobilization.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Vol. 1, pp. 19-217.
- Zaller, J., & Feldman, S. (1992). A simple theory of survey response: Answering questions versus revealing prefere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6, No. 3, pp. 579-616.

[부록] 설문지

설문지(A 유형/B 유형)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석사과정을 수료한 강은진입니다. 이 설문은 여러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과 다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한 내용과 그 결과는 순수한 연구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여러분의 개인 정보와 응답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 도중 중단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먼저 설문에 포함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후,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응답이 저의 연구는 물론 다문화교육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구자에게 직접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강은진 드림(jins0423@snu.ac.kr)



A 유형(다문화주의)

KBS 인간극장, '투이 사장님 좋아요',
<https://youtu.be/fmcBp-AEZ6o>

B 유형(동화주의)

KBS 인간극장 '마리의 남자들',
<https://youtu.be/wemx6QQ3kZo>

I. 한국 사회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 이주민들에 대해 귀하가 갖고 있는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 이주민: 일자리, 결혼, 거주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일컫는 말
 * 개발도상국: 산업 근대화와 경제 개발 속도가 느리거나, 아직 추진 중에 있는 나라를 일컫는 말(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아프가니스탄, 터키, 이란 등의 서남아시아/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말함.)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사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우리 동네에 피부색이나 문화가 다른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국제결혼가정)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이 법적으로 한국인이 되더라도 한국 사람과 똑같이 대하기는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외국인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진정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한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았더라도 한국인으로 보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우리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국제결혼가정)의 아이가 한국말을 잘 못한다면 나와 같은 한국인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이웃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고유 요리를 즐긴다면 가깝게 지내기 힘들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피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끼리 자신들의 종교 행사를 가지는 것을 보면, 되도록 가까이 가는 것을 피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따돌림이나 놀림을 받는 아이가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다른 다문화 가정(국제결혼가정) 출신 아이라면 쉽게 편들어 주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은 한국인끼리 결혼한 사람보다 더 심각한 가정 문제를 겪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한국인이 외국 이주민들을 이해해주길 바라기보다는 이주민들이 한국인을 이해하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외국 이주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 나라의 언어보다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이주민 여성은 결혼한 집안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외국 이주민이 한국 국민이 되려면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문화나 관습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19	이웃이나 동네에서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과 마주치면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 하기 싫다.	①	②	③	④	⑤	⑥
20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 이주민과 함께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에 들어가야 한다면 망설여질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21	한국에 이민 온 외국 이주민들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22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사는 지역에 가야 한다면, 두려운 생각이 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3	우리 학교나 학급에 외국 이주민 가정의 아이가 있다면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친구로 대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24	우리 학교에 다니는 외국 이주민 아이가 자기 집에 와서 놀자고 하면, 그 집에 가서 함께 놀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25	나는 기회가 있다면, 상대방의 인종, 국적, 문화권에 상관없이 기꺼이 친구로 사귀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26	내 생일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게 된다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도 함께 초대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II. 외국인, 외국 문화, 다른 나라의 문제들에 대해 귀하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의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온 사람들에 비해 능력도 더 뛰어나고 일도 더 잘 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외국인 친구를 사귀려면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에서 온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선진국에서 온 이주민과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온 이주민을 똑같이 대하기는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나는 한 나라의 국민만으로서보다는 세계 속의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는 식량부족으로 굶주린 나라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기 위해 하루 한 끼를 굶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를 돕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Ⅲ. 다음은 설문 결과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는 현재 몇 학년입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귀하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입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다문화 가정: 부모님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 새터민(탈북민) 가정 등

4. 귀하는 다문화 가정 친구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5. 귀하는 평소 신문, TV, 인터넷 등의 대중 매체를 통해 다문화 가정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접했습니까?

① 본 적 없음 ② 4개월~1년에 1회 정도 ③ 1개월에 2~3회 정도
④ 일주일에 1회 정도 ⑤ 일주일에 2회 이상

6. 귀하의 학업 성적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잘 한다. ② 잘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못하는 편이다. ⑤ 매우 못한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빠진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Abstract

The Effects of Media Framing of Immigrants o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KANG, EUNJIN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or : Mo, Kyung-Hwan, Ph. D.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social studies and multicultural education to achieve the goal of promoting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 key element of multicultural citizenship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framing styles of immigrants and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se were first reviewed, and then secondary school students were asked to watch the framed videos and respond to the survey to test a hypothesis.

In this study, media framing styles were classified into multicultural-oriented framing and assimilation-oriented framing. The

main hypothesis that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will differ depending on media framing styles of immigrant” and three sub-hypotheses were established accordingly.

To verify these research hypotheses, three middle schools located in Seoul were sampled, and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third-grade students of each school. Firstly,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nd each group watched either a multicultural-oriented framing video or an assimilation-oriented framing video. Subsequently, a survey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dependent variabl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356 survey data were finally included in the analysis. Based on these survey dat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effect of media framing of immigrants. Media framing style was set as an independent variable, whil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wa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Gender, presence of multicultural friends, frequency of contact with multicultural media, and academic achievement level were set as control variable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although the group subjected to a multicultural-oriented framing video showed higher level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compared to the group subjected to an assimilation-oriented framing video, the difference did not reac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All three sub-hypotheses, which were established by dividing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to three elements, were also rejected.

Several possibilities were suggested as the cause of these results. First, it is possible that both groups were provided with information on the same topic, resulting in a ‘priming effect’ that sufficiently primed them for that topic. Seco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elf-presentational bias’ occurred, in which students responded with

socially desirable attitudes they learned during class rather than their actual attitudes. Third, there may have been an interaction effect that increased or decreased media effects due to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media audiences influencing the interpretation of media content.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ovides some implications for multicultural media and multicultural educ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reexamine the existing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whose effectiveness has been verified to see if they contain the assimilationist perspective, as they may subtly disguise the assimilationist perspective as if it views immigrants positively. Second, there is a need to diversify the content and operation method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considering that gender and the presence of multicultural friends among the control variables in this study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level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opens a new horizon by combining the concept of media framing, which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with multicultural education, and suggests the possibility of using video media as multicultural education materials.

However,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since the research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limited to students attending middle schools located in Seoul,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e study to other regions and educational levels. In addition, random sampling was not conducted when selecting research participants. Furthermore, due to time constraints,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short period of time, making it difficult to grasp long-term effects.

Based on the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roposed. First, since this study limited the research participants to middle school students attending middle schools located in Seoul, additional verification of the hypothesis can be attempted by varying regions and school levels. Second, the research can be conducted by replacing the framing tool with other video media. Third, tools for measuring the dependent variable and control variables can be modified. Finally, long-term experiments and observations need to be conducted to closely verify the effect of media framing in multicultural education.

**keywords :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edia Framing,
Mu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ism, Assimilation**

Student Number : 2014-20915